

(주)오토닉스

민관합동 스마트공장 추진단과 MOU 체결



스마트공장추진단과의 업무협약이 이루어진 이후 단체 사진을 찍고 있는 오토닉스 마케팅 담당 이훈재 차장(왼쪽 하단 두 번째)

산업용 센서, 제어기기 전문기업 오토닉스(www.autonics.co.kr, 대표이사 박용진)가 민관합동 스마트공장추진단과 스마트공장 분야의 기술 교류 상호협력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3월 28일, 삼성 COEX에서 개최된 스마트공장 엑스포 2018 행사에서 진행된 이번 업무협약 체결은 스마트공장 분야의 기술 교류 및 기술 기획·개발 등의 협력 활성화와 한국의 관련 산업 발전을 위한 목적으로 이루어졌다.

오토닉스를 포함 총 13개사가 참여한 이번 협약은, ▲스마트공장 OT, IT 분야의 공동 연구 개발 및 기술 협력 ▲스마트 제조혁신센터 구축 ▲국내 스마트공장 확산 관련 협력 ▲그외 상호 발전 및 우수 증진 등의 필요에 따라 협력한다는 내용이 주

된 골자이다.

오토닉스의 이번 협약은, 정부의 제조업 혁신 3.0 정책에 따라 진행된 LS산전과의 ‘제조업 혁신 3.0 스마트공장 보급 사업 협력’ MOU에 이은 두 번째 스마트공장 분야의 협약이다.

오토닉스의 한 관계자는 “이번 업무협약은 국내 스마트공장 구축에 대한 오토닉스의 지속적인 관심과 의지를 보여주는 것뿐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 종사하는 기업들과의 협력을 통한 것이기에, 큰 시너지효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하며, “오토닉스가 보유하고 있는 센서, 제어기기 등의 분야에서 자동화 핵심 솔루션을 제공하여 국내 스마트공장 확산에 일조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